

'라이프' 부터 '흉부외과' 까지 강해져 돌아온 의학 드라마

다시 의학 드라마가 시청자를 찾아온다.

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의사들의 이야기는 시청자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온 효자 아이돌 중 하나다.

의학 드라마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종합병원' (1994)을 시작으로 '하얀거탑' (2007), '뉴하트' (2007), '골든타임' (2012), '굿닥터' (2013), '낭만닥터 김사부' (2016) 등 많은 의학 드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명작으로 남아있다.

최근 현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은 가운데 한동안 의학 드라마를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의학 드라마들이 다시 인방극장을 채울 예정이다.

오는 23일 첫 방송을 앞둔 JTBC '라이프'는 기존 의학 드라마와 다르게 병원 권력을 두고 충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동안 의사가 주인공이었던 것과 달리 병원의 총괄 사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도 처음이다. 조승우와 이종욱을 비롯해 원진아, 유재정, 문소리, 천호진 등 연기력으로 정쟁한 배우들이 출연하며 병원을 둘러싼 이들의 심리를 밀도 높게 그려

최근 현실 이야기 담은 드라마들 인기

올 하반기 보다 밀도 높은 이야기 담아

예정이다. 큰 전계 역시 의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나 잠재된 문제를 비롯해 인물들의 신념 충돌을 주로 다룬다.

특히 웰메이드 드라마로 평가 받는 '비밀의 숲' (2017) 이수연 작가와 조승우의 재회로 '하얀거탑'을 잇는 색다른 의학 드라마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SBS '흉부외과'도 결이 다른 의학 드라마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두 개의 목숨과 단 하나의 심장이라는 딜레마에 놓인 절박한 흉부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흉부외과'는 고수 엄기준, 서지혜 등이 출연해 새로운 의사 캐릭터를 그려간다.

지난해 인기를 얻은 드라마 '피고인'의 조영광 감독과 최수진, 최창환 작가가 다시 붙여 전작에 이은 촉촉한 이야기와 인물의 깊이 있는 감정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피고인'을 통해 새로운 인생 연기를 펼친 엄기준도 함께하며 또 다른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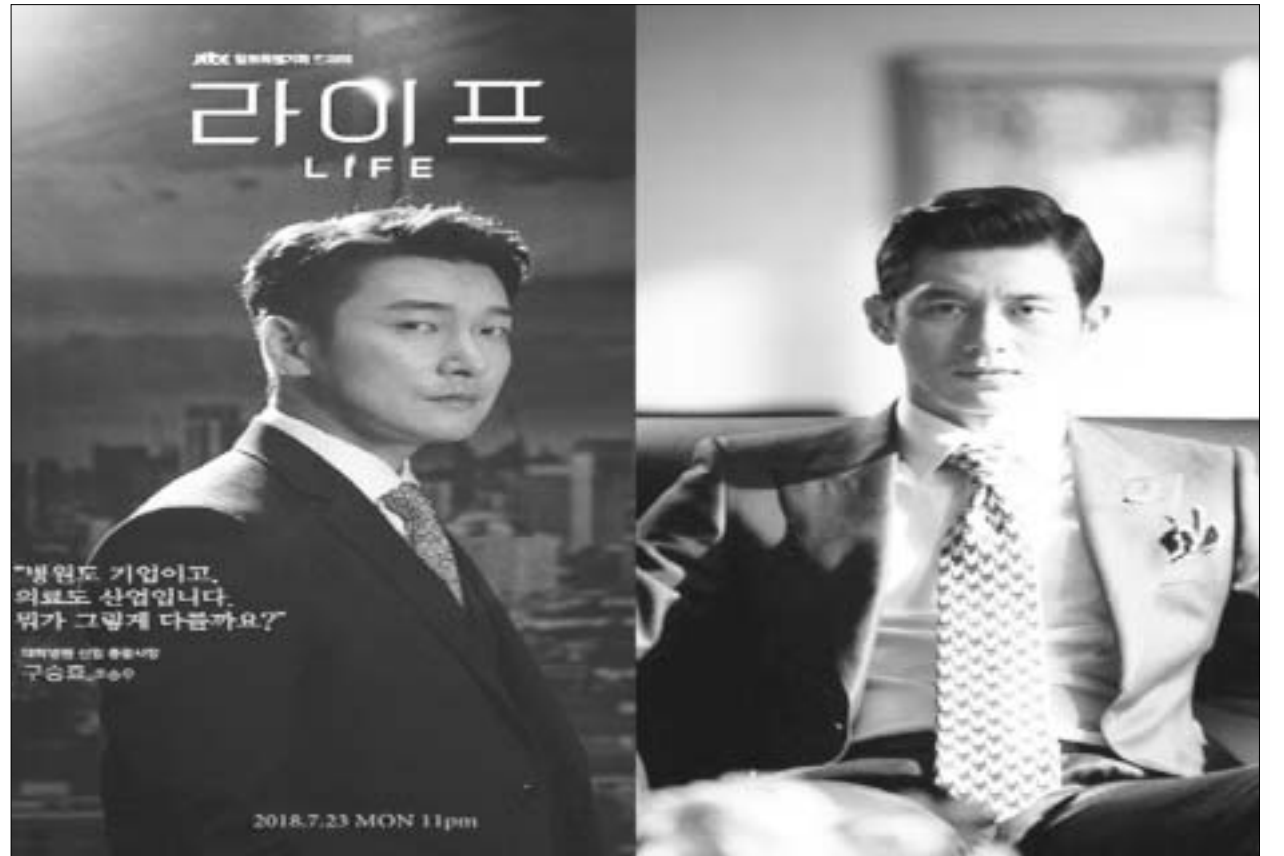
의학 드라마는 병원이란 전문적인 공간에서 펼쳐지지만 늘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있는 의사들의 내면과 갈등, 그 안에서 일어나는 휴머니즘을 담으며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기에 가장 친숙한 장르물이다.

올해는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들을 바탕으로 보다 밀도 높은 이야기를 담은 의학 드라마가 그려질 예정이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의학 드라마는 꾸준한 인기 아이템이지만 그만큼 시장포화율도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직업군이나 이야기를 병원에 녹이기도 한다. 또한 '기승전락'이라는 말이 있듯 일부 의학 드라마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로맨스로 의견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로맨스 요소를 아예 없애고 성장형 캐릭터를 넣는 추세다"고 전했다.

정통 의학 드라마는 아니지만 병원을 배경으로 의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들도 등장한다.

오는 23일 첫 방송되는 MBC '사



생결단 로맨스는 내분비과 의사와 신경외과 의사가 호르몬과 관련돼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호르몬에 집중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유쾌하게 그려지며 의학 드라마

의 색다른 갈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하반기 방송 예정인 OCN '프리스트'는 국내 최초 엑소시즘 메디컬 드라마라는 신개념 의학 드라마를

예고했다.

영화 '국가대표' 김중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며 영화 못지 않은 고 퀄리티 장르물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이번엔 핵 테러'... '미션6', 역대급 블록버스터의 컴백



리 감독이 2연속 연출을 맡았으며 이번에도 변함없이 톰 크루즈가 예단 힌트 역할을 맡아 대역 없는 역대급 액션 연기를 소화했다.

톰 크루즈가 이번 시리즈에서 헬기 조종뿐만 아니라 고난이도 스카이다이빙까지 시도한 최초의 배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헤일로 점프에 도전하기도 했는데, 훈련을 완수한 그는 상공 7600미터에서 100m 이상 뛰어내리며 시속 321km의 속도로 낙하했다는 제작진의

설명이다. 웬만한 액션 전문 스태프도 소화하기 힘든 열정의 액션 연기로 완벽한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다.

앞서 톰 크루즈는 이번 시리즈를 촬영하다 발목 부상을 입어 6주간 촬영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70미터의 높이에서 10미터 거리의 넓이를 뛰어넘던 그가 발목이 골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미션을 완수하고자 하는 예단 힌트 캐릭터에 몰입한 그가 발목이 골절됐다는 것을 알고도 촬영을 멈출 수 없었다는 후기를 남겼던 바.

휴식 및 회복을 마친 그는 다시 막바지 촬영에 임하며 영화를 끝까지 완성했다. 관객들의 몰입을 깨치지 않기 위해 매번 열정과 후원을 발휘하는 톰 크루즈는 이번에도 한계 없는 압도적인 액션 시퀀스를 완성해 '미션 임파서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이유를 만들었다.

액션 블록버스터는 국내 관객들에 인정받은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로, 장르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갖고 있다. 757만 명을 동원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2011), 612만 명을 모은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2015), 574만 명을 기록한 '미션 임파서블3' (2006)까지 세 편이 5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고 다섯 편의 시리즈 관객까지 합산하면 약 2천130만 명의 누적 관객수를 보유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 시장에서 국내 대작들과 경쟁을 펼칠 '미션 임파서블'이 얼마나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션 임파서블'은 예상치 못한 적들의 음모, 이를 막기 위한 IMF 팀과의 협업 등 최고의 요원들의 고군분투를 그려왔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물들의 관계도 역시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다.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 상황에서, 예단 힌트와 IMF가 피할 수 없는 미션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미션 임파서블'에서 펼쳐진다.

15일 오후 방한한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 이은 네 번째 행보이다. 이달 25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개봉을 확정하고 한국의 영화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나선 것.

무엇보다 그가 SBS 인기 예능 '런닝맨'에 출연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올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점쳐진다.

'히든싱어5' 린, 반전+감동으로 새로 쓴 레전드



린은 지난 15일 오후 방송된 '히든싱어5'에 출연했다. 1라운드에서 탈락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정쟁한 모창능력자들을 제치고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한 린이다.

린과 모창능력자들은 흥미로운 대결 구도는 물론 감동이 있는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날 린은 "즐거 보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 영광이다. 사실 시즌 2 정도에 나를 불러 줄 줄 알았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린과 모창능력자들은 린과 모창능력자들의 무대를 충분히 즐기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린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날 '히든싱어5' 린 편에 출연했던 모든 모창능력자들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시즌 최고의 무대"라는 반응이 이어졌던 것도 흥미롭고 긴장감 있는 이들의 대결과 감동이 함께 했기 때문 반전과 감동으로 함께 쓴 레전드 무대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음력 6월 5일)



▶**띠** 나는 흔들리는 갈래가 아니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마음이 계속 답답하겠다. 3, 4, 12월생 자존심을 내세우다 큰 화근을 자초할 수 있으니 참고 지켜보라. 마음의 문을 좀 더 열고, 폭넓게 생각하며 인생 공부를 해나가라. 검은색은 금물이다.



▶**띠** 비밀은 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 현재 마음이 동요된 상태이니 자기관리를 스스로 행해야 구설을 면할 수 있다. 6, 10, 12월생 친구나 친척 간 금전 거래를 삼가라. 그러나 동업한다면 복속에서 시작하면 무리 없다.



▶**띠** 경솔한 행동으로 주위가 시끄러워지니 무게감 있게 행동하라. 나, 너, 그 성씨는 별거해야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식 탓에 더 큰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고집부리지 말고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을 터놓고 의논하면 분명히 길이 있다.



▶**띠** 마음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과민반응하지 말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신경질적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못하다 신 경질함으로 고생할 수 있다. 나, 너, 성씨 별거수 따르니 두드러지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두 마음이 한몸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띠** 자만심을 버리기보다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개구리가 울창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야릇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관용을 베풀 때 남이 우러러볼 수 있는 인품을 인정받을 수 있다. 5, 8, 10월생 문신 감정을 솔직히 풀어버리라.



▶**띠** 조금 해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한 번 더 생각하라. 서둘러고 나간 금전이 다시 쌓일 리 없지 않은가. 애정 또한 잡으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진실성을 보여줬는지를 반성하라. 2, 7, 12월생 복, 서쪽이 길하다.



▶**띠** 상대만 탓하지 말고 내 행동도 생각해 볼 때다. 마음이 어긋날수록 서로 마음의 문을 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허욕과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데 힘쓰라. 1, 4, 6월생 매매건 서두르면 손해가 따른다.



▶**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랑이 지나쳐서다. 상대 또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라. 단, 조건 없는 사랑은 좋으나 잘못된 실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나, 너, 성씨 내게 돌아오는 것은 득이 없으니 한 번쯤 뒤돌아보아야 할 때다.



▶**띠** 내 삶을 중심을 지켜나가며 시련을 이기고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 2, 8, 9월생 가정 생활은 시작할 때는 화기애애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사랑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 행복을 향한다.



▶**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 진퇴양난에 놓인다. 같이 사는 사람의 말을 수렴하지 않고 무시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 1981년생 맞벌이 부부는 가정에서 활기찬 나날을 보낸다면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띠** 한 가지를 갖고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욕심부리면 손에 쥐는 것도 놓친다.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은 버리라. 남이 가까이에서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5, 10월생은 친한 사람이 보증을 부탁하면 거절해야 훗날 길하다.



▶**띠** 나, 너, 성씨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은 그냥 지나치라. 남의 사정 다 들어주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3, 7, 9월생 애정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시일을 두고 서서히 전진할 때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